

전북만의 문화자산, 공연으로 만나다

전북 대표 상설공연 공모...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2개 사업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2025 전북 대표 상설공연' 공모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거리극축제 노상놀이야' (이하 노상놀이야)와 '전통예술 지역브랜드 상설공연' (이하 브랜드) 등 2개 사업에 참여할 공연 콘텐츠를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15일간이며, 도내 14개 시·군이 지원 대상이다. 신청 지자체는 공연단체와 협력해 지역 특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어야 하며, 시·군비 매칭이 가능해야 한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 및 수행단체는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한 후 구비서류를 갖춰 공문

(시·군) 및 방문(수행단체) 접수하면 된다.

먼저 '노상놀이야'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거리예술 공연을 발굴·지원하기 위해 총 5편의 공연 콘텐츠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공연 콘텐츠에는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각 시·군당 총 6,8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된 시·군(공연단체)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거리예술 콘텐츠를 제작하고, 도내 대표 관광지에서 주말 13회 이상 상설 공연을 운영하며, 2회의 전북 대표 통합 퍼레이드를 진행해야 한다.

이어 '브랜드' 사업은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지역브랜드 공연을 육성하기 위해 총 6편의 공연 콘텐츠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공연 콘텐

츠에는 도비와 시·군비를 포함해 각 시·군당 총 1억 5,000만 원이 지원된다.

선정된 공연은 역사, 무형(문화유산), 한옥경관 중 한 가지 분야를 선택해 제작하고, 10회 이상 공연을 운영해야 한다.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작품 1편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북 대표 상설공연은 전북만의 독창적인 문화 자산과 명소를 활용한 공연예술 사업으로 도민과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문화예술 경험을 선사할 것"이라며 "많은 지자체와 수행단체가 참여해 지역 문화의 가치를 더욱 확산시켜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와 예술화관운영팀(063-230-7495)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올림픽 유치 기원' 미래세대 상상력 그림에 담다

전북특별자치도, 초·중·고 학생 대상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그림 공모전 시상식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가 19일 도청에서 '미래세대가 꿈꾸는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그림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하고,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북자치도가 주최하고 도의회, 도교육청, 도체육회, 도학원연합회가 후원하여 도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공모전에는 총 73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도내 교육·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들의 공정심사를 거쳐 도지사상(2점), 도의장상(2점), 도교육감상(3점), 도체육회장상(3점), 도학원연합회장상(3점)으로 13점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작들은 오는 28일까지 도청 로비와 전북자치도 대표 홈페이지에서 전시되어 도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낼 예정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수상자들에게 상장을 수여하고,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응원하는 퍼포먼스와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전북자치도는 2036년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스포츠 문화를 경험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재 전



전북특별자치도는 19일 도청에서 '미래세대가 꿈꾸는 2036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기원 그림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하고, 우수작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북은 수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체육·문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지만,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다면 국제 스포츠 스타를 직접 보고, 세계적인 무대를 경험하며 더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는 전북의 미래를 위한 도전이자, 우리 아이들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림픽을 더욱 친근하게 느끼고, 자신의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주문화재단,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 '뮤지엄×즐거다' 공모 선정

전주문화재단은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하는 박물관·미술관 주간 사업 「뮤지엄×즐거다」 전시 프로그램 공모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제박물관협회 한국위원회(ICOM KOREA)가 주최하고 한국

박물관협회가 주관하는 것으로, 오는 5월 2일부터 31일까지 '급변하는 공동체와 박물관의 미래'라는 2025년 ICOM 주제와 연계해 박물관·미술관의 역량 강화 및 전 국민 대상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등록 사립 미술관인 고흥미술관과 전주문화재단이 협력해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기획 및 공동 수업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선정으로 팔복예술공장과 전주 한옥마을의 고흥미술관을 무대로 전통과 현대, 지역과 외부를 연결하는 문화적 환류와 확대를 실천할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내가 가진 고문서, 역사적 가치 있을까?

정읍시, 고문서 등 가치 재평가 지원사업 시행

내가 소장한 고문서나 도자기가 역사적 가치가 있을까? 정읍시가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있다.

시는 시민이 소장한 고문서, 그림, 글씨, 도자기 등의 유물에 대해 역사·문화적 가치를 분석하는 '고문서 등 가치 재평가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유물의 금전적 가치나 빈역 지원이 아닌, 해당 유물이 어느 시대에 제작됐고 어떤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문가 감정을 통해 유물의 발행 시기와 제작 기법, 역사적 의미를 분석하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역의 소중한 향토자원을 발굴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장 유물의 역사적 가치를 평가받고 싶은 시민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시 접수할 수 있으며 감정 결과로 발행 시기와 포괄적인 내용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

지난 2023년 첫 시행된 이 사업에는 97점의 유물이 접수됐으며 지난해에는 116점이 접수돼 그중 20점이 유산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됐다.

이항수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이 소장한 유물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연구에 활용할 계획"이라며 "유물의 역사적 의미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으로써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재)안주문화재단은 19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안주문화재단,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GBCH 챌린지 동참

(재)안주문화재단은 19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유치 GBCH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 챌린지(Go Beyond, Create Harmony,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시작으로 국내 후보 도시 최종 발표 시점인 2월28일까지 릴레이 지목형 참여와 자유 참여형 챌린지로 진행되고 있다.

김용현 정석케미칼 대표의 지목을 받고 챌린지에 동참한 정철우 상임이사는 조준모 안주문화도시지원센터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함께 '도민의 뜻 모아!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응원 릴레이에

참여했다.

정철우 상임이사는 "전북의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하계올림픽이 전북에서 유치되어 우리 지역의 새로운 도약과 글로벌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안주문화재단과 안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앞장서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우 상임이사는 다음 챌린지 주자로 (사)안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이상배 이사장을 지목했다.

/원주=염재복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몽선 형의 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궁전에 딸린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춘향전은 조선시대 이몽선 형의 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렸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일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열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궁전에 딸린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